

유기농업의 대안농업적 의미 및 특징

허 장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대안농업의 의미

오늘날 관행농업이 “관행”, 즉 주류농업으로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성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화학적 합성물질로 만들어진 투입재에 크게 의존하는 포디즘적 대량생산형 농업, “공업적 농업(industrial agriculture)” (Clunies-Ross and Hildyard, 1992)이 세계 인구의 성장과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보통 관행농업은 자본집약적 농업, 대규모성, 고도의 기계화, 단작 영농,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학비료, 농약, 살충제의 광범한 사용, 집약 축산 등을 특징으로 하는 농업이며, 여기에 이러한 생산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농기업(agribusiness)을 포함한다(Beus and Dunlap, 1990: 594). 반면에 대안농업은 이러한 관행농업의 특징과 반대되는 농업, 즉 지역성과 소규모성, 합성물질 투입재의 사용회피, 지역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위주로 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행농업과 대안농업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영농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안농업은 관행농업을 지탱하는 사회, 경제체제와 물질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특별한 사회구조 및 특별한 도덕적, 인지적 신념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Tovey, 1997: 23). 미국의 국가유기농계획(National Organic Program, NOP)이 정의한 바를 보더라도 유기농업은 “생물학적 방법에 기초한

식품생산 방법임과 동시에… 영농에 대한 철학적 접근방법”(Rawson, 2006)이라고 하였다. 베우스와 던랩은 이를 패러다임의 차이, 즉 유기농업을 핵심으로 하는 대안농업과 기존의 관행농업 사이의 패러다임적 충돌로 본다(Beus and Dunlap, 1990; 1991; 1994). 유기농업이 기존의 관행농업 패러다임에 대항하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근대성(modernity)에 대립하여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흐름, 혹은 하나의 대안적 사회운동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Tovey, 1997; Michelsen, 2001a, 2001b; Kaltoft, 2001).¹⁾ 유기농업은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관행농업, 나아가 현대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근대성에 대항하면서 독자적인 신념체계를 갖추고 발전하여 왔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유기농업은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Michelsen, 2001a, 2001b; Kaltoft, 2001; Hall and Mogyorodi, 2001; Tovey, 1997).

1) 이렇게 관행농업과 대안농업 사이의 충돌을 패러다임의 충돌로 보는 것은 1970년대 말 이후 진행되어 온 이른바 DSP(dominant social paradigm), NEP(new environmental paradigm) 논의를 농업분야로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농업과 대안농업을 상충하는 패러다임으로 규정하여 이후 “대안-관행농업 패러다임 (Alternative-Conventional Agriculture Paradigm, ACAP) 측정지표”를 개발한 베우스와 던랩은 HEP(human exemption paradigm)-NEP(new ecological paradigm)의 충돌을 주장한 바 있다(Beus and Dunlap, 1990; 1991).

2. 대안농업으로서의 유기농업

서구에서는 유기농업이 20세기 초반부터 대안농업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대안농업으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에서는 1971년 정부주도로 “생물학적 영농방법에 관한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6년 뒤 “대안적 영농방법: 설명, 평가, 연구 권고”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관련 농학자들이 농업부 자문관으로 일하면서 대안농업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였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대안농업에는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체로 자연의 존재와 기능,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기존의 과학에 입각한 영농과는 다른 체계와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안농업을 광범하게 채택하는 경우 현재보다 생산량은 떨어질 수 있으나 식품 공급에 큰 재앙이 올 정도는 아니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에 영향을 받아 미국 농무성에서는 1980년 유기농업 연구팀을 조직하여 “유기농업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는 환경과 에너지, 해충방제, 토양관리, 식품의 품질, 농촌공동체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유기농업을 채택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기농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Boeringa, 1981; Ulbricht, 1981).

최초로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87년 덴마크에서였으며, EU 차원에서는 1991년 EC 규칙(EC Regulation 2092/91)을 통하여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와 생산기준 등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었다(Michelsen, 2001b: 65). 199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는 유기농업을 포함하여 농업이 가지는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지속, 유지시키는 일련의 영농체계들이 대안농업으로 제시되었고, 학계에서는 유기농업이 대안농업 운동의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가장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Francis, 1992; Clunies-Ross

and Hildyard, 1992; Beus and Dunlap, 1990). 1990년에는 미국이 유기농식품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PA)을 제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다시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의 지리학자 듀램은 유기농업이야말로 오늘날의 기업화된 공장형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the best alternative)”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Duram, 2005: 203).

3. 유기농업의 대안농업적 특징

일부 학자는 “반과학(antiscience)적이고 반기술적이며 반계몽적”으로서 “과학의 주류에서 거부된 지식”에 기초한 농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DeGregori, 2004), 유기농업이 농약과 화학비료 등 현대농법의 화학적 합성물질로 만들어진 투입재의 사용에 대하여 비판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대의 과학과 기술, 지식을 거부하고 과거의 원시적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기농업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환경과 자연, 인간에게 초래한 수많은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하나의 방식이다(Kaltoft, 2001; www.hartman-group.com).

미국의 농촌사회학자 베우스와 던랩은 관행농업과 대안농업이 패러다임적 충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이 두 농업의 핵심요소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Beus and Dunlap, 1990). 이들은 각 패러다임을 대표할 만한 저명한 저술가들 6명씩을 선택하여 이들의 대표적인 저작, 연설문을 분석한 뒤, 각 패러다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요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행농업을 지지해 온 패러다임은 생산과 유통의 집중과 이에 따른 대형화, 행위 단위들 사이의 경쟁, 자연 혹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 단작 재배와 같은 부분별 전문화, 자원에 대한 약탈적, 인간 중심적 이용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대안농업 패러다임은 지역성에 입각한 분산, 행위 단위들 사이의 상호 협조와 공유, 자연 및 환경과의 조화, 다양성, 자원 남용에 대한 자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관행농업 패러다임	대안농업 패러다임
집중(centralization)	분산(decentralization)
경쟁(competition)	공유(community)
자연에 대한 지배 (domination of nature)	자연과의 조화 (harmony with nature)
전문화(specialization)	다양성(diversity)
이기적 이용(exploitation)	자제(restraint)

한편, 국제유기농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IFOAM)은 1972년에 세워진 유기농업 운동단체들의 모임으로서, 이 기구가 제정한 유기농업의 기준은 EU와 FAO/WHO의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ttee, CAC)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 때 모델로 삼았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민간기구이다. 이 연맹은 유기농업이 지향하는 원칙으로서 건강, 생태, 공평, 그리고 보호의 원칙을 들고 있다(www.ifoam.org).

건강(health)	토양, 작물, 동물, 인간, 그리고 지구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로서 이 모든 것의 건강을 유지하고 고양시켜야 한다.
생태(ecology)	살아있는 생태계와 그 순환체계에 기초를 두고 그것과 함께 노력하며, 그것을 따르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공평(fairness)	모두 함께 환경과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공평성을 보장하는 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care)	현재와 앞으로의 세대, 그리고 환경의 건강과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끔 예방적이고 책임감 있게 유기농업이 실천하여야 한다.

벽과 그의 동료들은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에 대비되는 주요 특징을 다품목 재배로 기계화 배제, 소규모 재배로 규모의 경제 배제, 이윤보다는 환경, 건강, 지역경제 등에의 관심, 소비자의 수요 주도형 성장 등을 들고 있다(Buck, Getz and Guthman, 1997). 결국 유기농업의 이러한 특성들은 유기농업의 환경친화성, 지역성 및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열거한 대안농업 패러다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유기농업의 환경친화성, 지역성, 사회적 형평성

유기농업은 물, 흙, 공기 등 무생물의 자연과 동식물, 그리고 인간 자신의 건강을 모두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환경친화형 농업이다. 농업은 자연을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편리한 방식으로 변형시키면서 자연이 가진 본래의 모습과 순환원리를 불가피(혹은 불필요)하게 왜곡, 훼손시키게 된다. 농업 생산성이 극도로 발전하여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습지, 동물 서식지 등의 민감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문제를 놓고 농업과 환경이 대립, 충돌하는 경우가 숏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기농업은 환경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합리적 관리의 생산방식과 과정을 통하여 환경과 자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품질의 최종생산물을 인간에게 공급하고자 한다. 유기농업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자원의 순환고리를 유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 대안이 될 수 있는 농업형태가 된다. 따라서 유기농업의(상대적) 환경친화성은 관행농업과 구별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의 하나이다.

아울러 유기농업은 대체로 가족농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국지적 시장을 대상으로 실천되어 왔다

(Duram, 2005: xii). 기계나 화학제품보다는 인력과 천연제제를 사용하고 단작보다는 혼작, 윤작을 추구하는 유기농업은 기본적으로 가족노동력을 위주로 소규모 농지에서 여러가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족농(family farm)에 적합한 농업이다. 현대식 관행농업은 대체로 대규모 농지에서 대형 농기계와 기술집약적 시설 등 고정자산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농산물을 생산, 가공, 공급하는 포디즘적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중시한다. 이에 반하여, 유기농업은 신선채소나 운송, 보관중 상하기 쉬운 과일 등을 위주로 다품목을 소량으로 생산, 공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각화와 융통성에 따른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추구하기에 쉬운 농업이다(Coombes and Campbell, 1998). 소규모, 지역단위에서의 생산인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경종농업과 원예, 축산이 서로 조사료와 천연 유기질 비료와 같은 비유기합성 물질을 매개로 연계될 수 있다. 이로써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물질 공급과 외부로의 부산물 배출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지역 내 에너지 순환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소량으로 다양하게 생산된 농산물 역시 먼 곳으로 운송되지 않고 소비자 직거래나 파머스 마켓, (지역 내) 전문매장에 공급되어 국지적 시장에서 유통, 판매됨으로써 농식품 이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유기농업은 사회적 형평과 분배정의에도 부합하는 영농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소규모의 가족농은 대기업농과 경쟁할 때 어쩔 수 없이 생산비와 마케팅 비용의 효율성에서 열세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유기농식품은 식품안전성과 환경의 질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추가비용을 시장에서의 차별적 가격 프리미엄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특히 유기농가 자체적으로 구성된 민간조직, 혹은 국가기관이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식적 관리와 인

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일반 농식품보다 높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중소규모의 가족농 유기농가에게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된다. 나아가 중간 수집상, 대형 농식품가공업자, 도소매 유통업자 등의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거나 생략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외부누출을 막고 품질과 식품안전성, 가격, 시장 안정성의 측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기농 생산농가의 조직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조직화, 그리고 농가가 속한 공동체 사회의 조직화가 일어나, 궁극적으로 지역성(locality)의 해체를 막고 반대로 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 대규모 농기업과 중소규모 가족농 사이의 지역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 유기농업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과 사회적 형평성은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퍼글리스는 유기농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Pugliese, 2001).

즉, 첫째, 유기농업이 갖는 혁신성(innovation)은 농촌 마을에 생동과 활기를 심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 둘째, 유기농업은 외부로부터의 투입재 유입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자연 특성을 보전(conservation)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농촌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주민 참여(participation)에 입각한 농촌발전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하고 성공적인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유기농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유기농을 비롯한 저투입농산물은 이렇게 각 부문을 연계하여 통합(integration)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㉞